카타르월드컵 '역대 최고의 결승전'…6골 폭죽쇼에 전 세계 열광

아르헨, 프랑스와 연장까지 3-3 비긴 뒤 승부차기서 4-2 승리
월드컵 역대 한 대회 최다 총 172골 터져…경기당 평균 2.68골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18일(현지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정상에 올라 우승컵을 들고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환호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연장 3-3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로 프랑스를 4-2로 꺾고 36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끝난 2022 카타르월드컵 결승전이 전 세계 축구 팬들로부터 '역대급'이었단 찬사를 받았다.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대회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 연장전까지 3-3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해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통산 세 번째이자,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역대급 결승 무대였다. 양 팀 스코어가 보여주듯 이날 경기는 전·후반 90분을 넘어 120분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아르헨티나가 전반 23분 리오넬 메시(파리생제르맹), 36분 앙헬 디 마리아(유벤투스)의 연속골로 2-0 리드를 잡으며 승부는 아르헨티나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후반 중반 들어 프랑스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후반 35분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가 페널티킥으로 만회골을 넣은 뒤 1분 만에 한 골을 더하며 순식간에 2-2 동점을 만들었다.

결국 승부는 연장전으로 돌입했고, 양 팀의 골 폭죽은 계속됐다.

이번에도 아르헨티나가 연장 후반 3분 메시의 골로 다시 앞서가는 듯했으나, 10분 뒤 음바페가 페널티킥으로 다시 3-3의 균형을 맞췄다.

120분 싸움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양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최후의 승자는 아르헨티나가 됐다.

각본 없는 드라마에 찬사가 쏟아졌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공식 소셜네트워크(SNS)에 "역대 최고의 결승전"이라고 적었다.

이날 결승전에서 양 팀 합쳐 총 6골이 나왔는데, 4년 전인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결승전 6골 공방이었다.

러시아 대회 때는 프랑스가 4골, 크로아티아가 2골을 넣은 바 있다.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인 리오 퍼디난드도 SNS에 "다신 못 볼 경기다. 최고의 팀이 맞붙었고,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극찬했다.

36년 만에 조국 아르헨티나에 월드컵 우승을 안긴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도 "정말 미친 경기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또 5번의 월드컵 도전 만에 우승컵에 입맞춤한 메시도 "언제가 우승할 줄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우승이 찾아오는 건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타르월드컵에선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총 172골이 터졌다.

이는 1998년 프랑스 대회와 2014년 브라질 대회의 171골을 넘어선 월드컵 한 대회 최다 골 신기록이다.

경기당 평균으로는 약 2.68골이 나왔는데, 이 부문 역대 최다 기록은 1954년 스위스 대회의 5.38골이다. 당시 참가국은 지금의 절반인 16개국이었다.

뉴시스

'GOAT 논쟁 끝' 메시 "평생 원했던 트로피…은퇴 안 해"

대회 총 7골…"세계 챔피언으로 뛰는 경험 이어가고 싶어"
스칼로니 감독 "메시 원하면 다음 월드컵 10번 유니폼 준비"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18일(현지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우승컵을 안고 있다.

2022 카타르월드컵 우승으로 진정한 '축구의 신'이 리오넬 메시(35·파리생제르맹)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활약을 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메시는 19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프랑스와의 대회 결승전을 마친 뒤 "나는 월드컵 우승을 정말 원했다. 이렇게 우승이 찾아오는 건 정말 미친 짓"이라며 기뻐했다.

이어 "신이 내게 월드컵 트로피를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렇게 될 것 같았다. 이젠 우승을 즐길 때다. 우승컵이 정말 아름답다"고 덧붙였다.

메시가 이끈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의 2022 카타르월드컵 결승전에서 전·후반 90분을 2-2로 비긴 뒤 연장전까지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아르헨티나가 4-2로 승리했다. 1986년 멕시코월드컵 이후 무려 36년 만에 우승이다.

또한 축구 커리어에서 모든 우승을 이뤘으나, 월드컵 우승컵만 없던 메시의 첫 월드컵 우승이기도 하다. 2006년 독일월드컵에 처음 나섰던 메시는 개인 통산 5번째 도전 끝에 우승컵을 손에 들었다.

그야말로 메시를 위한 월드컵이었다. 그는 결승전 멀티골을 포함해 이번 대회서 총 7골 3도움으로 조국 아르헨티나 우승에 앞장섰다.

비록 대회 득점왕인 '골든부트'는 아쉽게 놓쳤지만,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을 수상했다.

월드컵 우승컵을 손에 쥔 메시는 "평생 원했던 트로피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해냈다"고 했다.

30대 중반의 메시에게 이번 대회는 '라스트댄스'로 불렸다.

하지만 염원하던 월드컵을 거머쥔 메시는 당분간 대표팀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은퇴는 없다. 세계 챔피언으로 경기에 뛰는 경험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표팀 생활을 이어가겠단 메시의 말에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메시가 원한다면 다음 월드컵 때도 등번호 10번이 적힌 메시의 유니폼을 준비해야 한다"며 "메시가 동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라커룸에서 그의 영향력을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시는 자신의 커리어에서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당대 최고'라는 의미인 'GOAT(The Greatest Of All Time)' 논쟁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세기의 라이벌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포르투갈의 8강전 탈락으로 월드컵 우승 꿈이 무산됐다.

또 '최종 보스'였던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에도 판정승을 거두며, GOAT 논쟁은 종결됐다.

뉴시스

'손가락 부상·8번 레인' 딛고 '금빛 역영' 펼친 황선우

예선서 마지막 터치 때 부상…8번 레인 불리함도 이겨내고 아시아신기록 세워

황선우가 18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의 스포츠 앤드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 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위로 골인한 후 기뻐하고 있다. 황선우는 1분39초72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내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9·강원도청)가 부상 악재도, 8번 레인의 불리함도 이겨내고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황선우는 18일 호주 멜버른의 스포츠 앤드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39초7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로써 황선우는 대회 자유형 200m 2회 연속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는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5회 대회에서 1분41초60으로 1위를 차지, 자신의 메이저대회 첫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황선우는 지난 16일 이번 대회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영자로 나서 자신이 써낸 쇼트코스 자유형 200m 한국 및 아시아기록인 1분40초99를 1초27이나 단축했다.

2018년 중국 항저우 대회에서 다나스 랍시스(리투아니아)가 세운 종전 대회 기록(1분40초95)도 1초23 줄였다.

파울 비더만(독일)이 2009년 11월 경영 월드컵에서 작성한 세계기록(1분39초37)에 불과 0.35초 뒤처진 역대 2위 기록이기도 하다.

온갖 악재를 딛고 일군 금메달이다.

황선우는 이날 오전 치러진 예선에서 1분42초44로 전체 46명 중 8위에 올라 간신히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9위와 격차가 0.1초에 불과해 자칫 결승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부상까지 입었다.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황선우는 예선에서 마지막 터치를 하다가 오른쪽 중지를 다쳤다.

현장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게 되자 대표팀 코치진은 선수 보호를 위해 황선우의 출전 여부를 고민했다.

그러나 황선우의 출전 의지가 너무 강력했다.

진통제까지 맞고 나선 결승에서 황선우는 8번 레인을 배정받았다. 예선에서 결승행 막차를 탄 탓이다.

8번 레인은 기록이 좋은 중간 레인 선수들이 일으키는 물살의 영향을 받아 물의 저항이 다른 레인보다 클 뿐 아니라 경쟁 선수를 견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황선우는 첫 25m 구간을 10초83으로 주파하면서 매섭게 선두로 치고 나갔다. 잠시 2위로 내려앉기도 했으나 100~125m 구간을 12초58로 주파해 1위로 올라선 후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

황선우는 "사실 예선 때 터치를 잘못해 손가락이 많이 붓고, 통증이 너무 심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도 8위로 결승에 간 것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참고 뛰길 정말 잘했다"며 웃어보였다.

온갖 악재에도 눈부신 기록을 써낸 황선우는 2022년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황선우는 "이번에 아시아신기록을 두 번이나 세우고, 대회 2연패를 달성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현장에 한국 팬 분들이 많이 와주셨고, 한국에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나도 더욱 힘을 내서 금메달이라는 정말 좋은 성적을 얻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20일 대표팀과 함께 귀국해 짧은 휴식을 취한 뒤 내년 초 2023년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한다.

이정민, 올해 KLPGA투어 마지막 대회 통산 10승 달성

이정민(30·한화큐셀)이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마지막 대회에서 통산 10승을 달성했다.

이정민은 18일 베트남 남부 빈즈엉 트윈도브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올해 KLPGA 투어 마지막 대회이자 2023시즌 2번째 대회인 PLK 퍼시픽링스코리아 챔피언십 with SBS Golf(총상금 7억 원·우승상금 1억2600만 원)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를 쳐 최종 합계 9언더파 207타로 우승했다.

이정민은 버디 4개를 잡아냈지만 14, 15, 16번홀에서 잇달아 보기를 범했다.

경쟁자들이 부진했다. 2라운드 1위였던 최예림이 이날 3오버파를 치며 최종 6언더파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2라운드에서 이정민과 함께 공동 2위였던 고지우는 18번홀에서 쿼드러플 보기를 범하며 무너졌다.

이로써 이정민은 2010년 KLPGA 정규 투어 데뷔 후 12년 만에 통산 10승에 도달했다.